

여천NCC, 모범 관세 납세기업 선정

관세청은 여천NCC, 하이닉스반도체 등 성실한 모범 관세 납세기업 15개를 아름다운 관세 행정 파트너로 선정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등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.

아름다운 관세 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은 여천NCC, LG마이크론, 한국후지쯔, 하이닉스반도체, 삼성피엔에이, 삼보산업, 엘아이지넥스원, 하나마이크론, 한국사빅이노베이트브플라스틱, 동창 등 관세분야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, 에스엘시디, 하나로티엔에스, 삼성탈레스, 인성산업 등 물류분야이다.

관세청은 선정기업에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, 통관 후 세액을 납부할 때 신용담보 한도 50% 증액,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,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, 여행자 휴대품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.

또 기업 대표자의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시 전용통로 이용, 정부조달 적격기업 선정 및 병역특례기업 지정시 가산점 부여,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고객 대우, 국세청의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시 담보 면제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2007/12/21>